

# 광양시 홍보대사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세계신기록 깨다



## '4시간 25분'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신기록 달성

광양시 홍보대사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25일 일본 오사카시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얼음 위 맨발로 서 있기' 세계신기록을 깨다. 광양시 따르던 이날 도전은 일본 오사카시 고려축구협회 초청으로 제26회 오사카시 고려배 국제 축구 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국제 환경운동가 조승환 씨는 지구온난화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22일 고흥 우주항공축제에서 자신이 세운 '얼음 위 맨발' 세계신기록 4시간 22분에 도전하여 '4시간 25분' 기록 경신에 성공했다.

광양 출신으로 광양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조승환' 씨는 영하 30도 한라산 맨발 등반, 세계 최초 후지산(3776m) 맨발 등반,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맨발 국토 종주(광양-임진각 427km)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기록을 거듭 경신해 나가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부 등의 선행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도전에 성공한 조승환 씨는 "빙하를 뜻하는 '얼음' 위에서 지구를 표현하는 '맨발'로 오래 서 있는 퍼포

먼스를 통해 전 세계에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기후 위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내와 집중력을 갖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한 것에 대해 광양인으로서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의 도전도 광양시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는 오는 8월에는 베트남, 10월에는 중국, 11월에는 독일에서 자신의 세계 기록에 도전할 계획이다. /광양=조순의 기자

### 포토뉴스



서구민한가족 나눔 후원금 전달식 김이강 서구청장은 23일 오후 (주)SCI로부터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있는 돌봄이웃들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받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선주 기자



순천 서면마중물보장협의체, 40세대에 반찬 전달 순천시 서면 마중물보장협의체는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찬도 정이다'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서면 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돼지고기 찜조림, 멸치볶음 등 5가지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40세대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반찬을 전달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 귀가 중 소방관들 교통사고 현장 인명구조 '눈길'

완도소방 고두현·김세곤 소방교, 차량에 치인 60대 구조

귀가 중이던 완도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 빠른 대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23일 완도소방서에 따르면 고두현 소방교와 김세곤 소방교는 지난 22일 오후 10시20분께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석전교차로에서 운동을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60대 여성 보행자가 SUV 차량에 치인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고 소방교 등은 긴급상황임을 판

단하고 2차 사고 예방조치를 취하면서 환자 상태를 살폈다.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왼쪽 팔꿈치 개방성 골절, 손목 골절, 두부손상으로 인한 출혈 등이 나타난 상태였다. 이들은 긴급히 119에 신고해 사고 위치와 환자상태를 알리고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나섰다.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2차 손상방지에 나서는 사이 다행스럽게 환자의 의식이 돌아 왔고 이후 나주시소방서 빛가람센터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고 소방교와 김 소방교는 인명구조사 등 전문가격을 취득하고 여러 구조 현장에서 활동한 구조 특별체육 소방관들이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현재도 9주간 진행되는 응급구조사 2급 과정을 이수하는 중이어서 교육과정의 응급처치법이 한몫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두현 소방교는 "소방관으로서 이런 응급상황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었다"며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서슴없이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 광주시교육청, 운암중에 학교복합시설 구축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운암중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암중 지하 공간을 활용해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탁구장 등 학교체육시설 및 주거지 주차장을 지하 공간에 1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복구청과 그동안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 학교와 복합시설 구성안을 선정했다. 오는 7월 중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복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친다. 그 후 교육부에 8월 14일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부지를 이용해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를 통해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둘 다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구경양초 부지에 2024년 5월 준공 목표로 학교복합시설인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완공 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공간인 '빛고을교사지원센터'로 사용된다.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 체육·문화·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박준수 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 광주시장애인체육팀 심폐소생술대회 장관상

광주대표 출전...전국 38개팀과 경쟁 수상 영예



광주시장애인체육팀이 '제12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 주관으로 지난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일반인 심폐소

생술 경연대회'에서 광주시장애인체육팀이 보건복지부 장관상(대학·일반부)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장애인체육팀(김민권·신지환·최건우·조성환·최정우 씨)은 지난 4월 광주시에서 열린 예

선에 참가해 광주대표로 발탁돼 본선에서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하고, 최종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소방안전본부 시도 대표 학생·청소년부 19개팀, 대학·일반부 19개팀 등 총 38개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퍼포먼스가 있는 심폐소생술 경연, 심정지 발생상황과 대처행동을 8분 이내의 짧은 연극 형태로 표현했다. 송성훈 광주시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은 "광주대표팀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 주암댐노인복지관, 폭염 대비 선풍기 지원

탑코·탑코미디어·메타크래프트 후원



사회복지법인 K-water 나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주암댐노인복지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연계 탑코, 탑코미디어 메타크래프트 지원으로 폭서기 대비 선풍기를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폭서기 대비 지역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 어르신 중 선풍기가 없거나 노후로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폭서기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폭염 대비 신체 건강 예방 및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를 목적으로 지원되었으며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며 정서적 지지 효과 기대된다. 문응연 주암댐노인복지관장은 "올 여름 어르신들이 무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 광주교육청, 2023 고등학생 독서논술축제

고등학생 대상 독서 기반 소통형 논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4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소강당에서 관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2023 독서논술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독서논술축제는 독서·토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학교 학생들과 공유하는 협력 능력 향상과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논술 전문 지도교사의 '효과적인 논술문 작성의 실제' 특강 ▲독서퀴즈 ▲독서·토론 및 논술문 작성 ▲논제 해설 및

대표첨삭 ▲지도 교사의 첨삭 및 참가학생 상호 첨삭 등으로 구성됐다. 독서를 기반으로 한 실제 논술문 작성과 상호 첨삭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책읽기와 논리적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2권의 주제도서로 '논어'와 '투명인간'을 선정했다. 주제도서를 기반으로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 활동을 진행했다. /조선주 기자

## 광양읍, 복지기동대 선제적 역할 '톡톡'

민관 협력으로 복지 자원 적극 연계

광양시 광양읍은 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생활 불편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 지원사업으로 시행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읍면동별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불편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처리하는 민관협동의 '복지 인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광양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상반기에 생활 불편 개선 서비스를 포함한 총 1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반기에 예정된 생활 불편 개선 서비스 예산 1500만원 추진 외에도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양읍생활안전협의회 등 봉사단체의 활동과 지역 내 기업체 (주)우양전력 등의 재능기부사업, 사회단체의 사회환원사업 등 민간자



원을 발굴·연계해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누수로 위아래층 이웃 간 갈등이 심했던 지적장애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 불편 개선 서비스 외에 2개 민간 사업(전남도 행복동지사업, 광양제철소 협력사업)의 집수리 사업을 연계해 총 25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